

# 先進國의 꿈

A Dream of Advanced Nation

OCCASIONAL THOUGHTS

朱命錄 / (주)인천건축사사무소

by Joo, Myung - Nok

최근 2, 3년간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무역적자다 수출 부진이다. 또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앞날이 불안하다 무슨 압력이다 등등 국내사정도 불경기에다 복잡 다난한데 이렇게 대외관계마저도 꼬이고 앞날이 불투명하니 도무지 살 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우울한 심정을 풀기위해서는 관심의 초점을 단테로 돌려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근접해 있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패전직후 그 어려웠던 당시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성향 및 그 후 세계정상급 국가로까지 부상하게된 배경 등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 가며 깊이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정상의 자리를 노려보는 자신에 넘쳐있는 일본이지만 수십년 전만해도 후진국 대열에 속해 있었다. 그 예로 종전후 일본에 상륙한 미군기술진이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인 도요다와 닛산의 부품을 분석·연구해본 결과 미국에 비해서 적어도 30년은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전투 식량으로 물과 연료가 동시에 필요하고 무겁기까지한 쌀을 선택했다는 점과 낙후된 공업력을 가지고 부강하고 기술선진국인 미·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자청했다는 것이 애당초 무리한 일이었다는 평도 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의 일본을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전후, 일본의 도시는 폐허가 되어있었고 식량, 의복, 주택 등은 태부족이요, 설상가상으로 외지에 있던 군인의 복귀와 해외 거주민의 영구귀국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반면 자본이나 자원은 없고 기술도 낙후되어 있는데다 모든 일에서 조이기만하는 맥아더사령부의 눈치를 살펴가며 살아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실정으로 모두가 될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림과 정신적 고통을 잊기위해서 술과 노름과 여자 그리고 대중가요로 위안을 받고 살아갔다고 한다. 그런 실정에 있던 일본에 천우신조라고나 할까 일본인 식의 "가미가제" 즉 신평이 불어왔다고나 할까 한반도에서 6. 25전쟁이

발발 되었던 것이다.

미소냉전의 시대에 전략요충지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유엔군이 전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을 근거지로 삼게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그 막대한 군수물자의 상당량을 일본에서 발주·조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맥아더사령부의 일본감시도 대폭 완화되어 일본인 특유의 집단지향적인 심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일본발전의 큰 요소인 '조직력'에 헌신적인 충성정신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미군의 군수물자 주문도 점점 늘어나서 미처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로 대량주문이 이어져 외화도 벌게되고 국정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경제대국으로 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도 월남 출병으로 시비도 많았다. 사실 4천여명의 전사자와 지금까지도 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아프기 한이 없으나, 그때 월남에 간 장병들 덕분에 국력이 신장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당시 일본에 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세계최강으로 소문난 미해병대보다도 한국군이 더 강하며 베트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한국인부대라는 소문이 현지 특파원들의 보도로 항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한국인을 깔보는 습성이 있는 일본땅에서 이말을 들으니 대단히 기분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을 따라간 군납업자들의 활동의 여력이랄까 이때의 인연이나 연줄로 많은 한국인이 사업차 동남아로 또는 세계각처로 진출하게 된 것도 이때를 계기로 급속도로 불어났다.

월남전의 미군 군납 또는 용역으로 상당한 외화가 국내로 들어와 경기가 좋아졌고 그때 거기서 잡힌 기반으로 현재 재벌로 대성한 사람도 있다.

이때도 일본은 미군납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6. 25에 이은 두번째의 대단한 호경기로 경제가 활력이 넘치게 되었으며, 경제대국으로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옛날 과거(科擧)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합격하는 것이 지위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제도가 장기간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손에 더러운 것 만지지 않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잘사는 길은 출세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대에까지 그러한 사고 방식이 이어져, 지금도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는 지도층이나 돈 많고 권세있는 집안에서는 딸의 장래와 안정을 위해서 사위감으로 그런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우산 하나를 가지고도 몇백년을 소중히 가업으로 이어가며 연구·개발해 나가는 집안이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우리주변에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착실하게 일하며 천직으로 알고 꾸준히 지켜가는 사람을 우리사회에서는 발전성없는 위인이니 바보니하며 비웃거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악습으로 되어 버렸다.

이런 점이 모두가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회만 있으면 가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풍조가 팽배해 있으며, 그래서 투기가 성행하고 APT값이 하늘 높을줄 모르게 뛰는 등 이른바 ‘한탕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내실보다는 외양과 자기과시의 습성이 있는 것 같다. 그 예로 별소용도 없는 집의 대문을 설치하는데 분수에 넘게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남의 눈에 웅장하고 호화롭게 비치기를 원한다.

이런점은 예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옛날에도 행세패나 하는 사람들의 집은 사실 안채는 별것도 아니고 살기도 어려운데 대문만을 웅장하게 세우는 성향과 일맥상통 한다.

아니, 솟을 대문의 형태 자체가 한 가문의 권위와 자기과시의 심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폐단을 안에서 부드러운 말씀씨로 바르게 유도해가며 집안이 잘되어 나가도록 조절해 나가야 할 일부 우리네 주부들은 타는불에 물뿌릴 생각을 하지않고, 오히려 덩달아서 부채질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 한족 대다수의 주부들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암전한 주부들이란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주부층은 문화 선진국 사람들의 검소하고 건실한 생활철학을 연구·흡수·소화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불건전한 정서풍토의 개선없이는 발전이고 선진국이고 모두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이다.

개선책의 한가지로 경제가 심한 기복없이 안정되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 근면·검소하게 각자의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으면 직종에 관계없이 생계 보장이 된다는 확신이 타인의 설명을 듣지않아도 자연히 피부로 느끼게 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옛날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계급의 불문율(不文律) 질서가 수세기 동안 엄격히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들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알며, 각자가 속해있는 직분에서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심성이 몸에 배었다.

그 예로서 일본에는 권세 좋고 재력있는 거물에게는 반항할 생각 말고 고분고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말이있다.

이런 처세훈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사람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턱없는 출세를 꿈꾸는 사람은 마치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풍토이기때문에 우산업이건 떡집이건 가업을 이어서 백년 이백년 된 집안이 허다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맛있는 과자나 식품 또는 질 좋고 편리한 공산품이 많이 나오게끔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계승하고 유지·개발해 나가는 풍토이기 때문에 기술도 향상되고 발달되어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이 각광을 받는 등 기술선진국으로서 세계정상을 다투는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기술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기술원리를 창안해낸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주변에는 유감스럽게도 맨홀뚜껑과 도면과의 고저차를 맞추지 않고 태연히 방치해둔 곳을 왕왕 볼 수 있고 이런것들은 특히 간선이 아닌 도로나 보도에서 많이 목격된다. 이런것을 제대로 하려는 정신과 내가말은 이일을 좀더 질 좋고 견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과 정열이 있어야만 우량공산품의 생산이 또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업전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공산품의 정밀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웬만큼 맞으면 그것으로 적당히 끝내버리는 습관이 있다.

원리는 외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독창적으로 응용해오고 있는 것이 일본산업의 특징이다. 그 특징에 더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질 좋고 편리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아가며 수출하여 많은 외화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창력에 있어서는 전술한 오랜 전통의 정서 때문에 수평적 사고성향의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우리의 지혜와 성향이 장차 일본보다는 뛰어난 독창력을 발휘할 때가 오지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기도 한다.

물론 무질서를 권장한다거나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성향면으로 볼때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것도 어떤 기상천외한 것은 현세계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며 지나쳐버린 것들 중에서 발견된다고 본다. 질 좋고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도로포장할때 노면과 맨홀뚜껑과의 수평이 제대로 맞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을 품만 많이들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내어서라도 견고하고 완벽하게 맞추어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왕래할 수 있게 시공해주는 성의와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정신이 그대로 양질공산품 생산으로도 통하는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주변에는 유감스럽게도 맨홀뚜껑과 도면과의 고저차를 맞추지 않고 태연히 방치해둔 곳을 왕왕 볼 수 있고 이런것들은 특히 간선이 아닌 도로나 보도에서 많이 목격된다. 이런것을 제대로 하려는 정신과 내가말은 이일을 좀더 질 좋고 견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과 정열이 있어야만 우량공산품의 생산이 또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업전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공산품의 정밀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웬만큼 맞으면 그것으로 적당히 끝내버리는 습관이 있다.

독일사람들은 기계의 한부위에 가령 볼트가 6개 있다면 거기에다 다같이 너트 6개를 돌려서 조이는데 돌려조이는 회수가 6개 모두 동일한 회수로 조인다고 한다. 하나라도 더 조이거나 덜 조이는 법이 없다는데

이것은 기계전체가 정밀·정확한 치수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수한 독일기계공업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후의 낙후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많은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그에 적응해 나갔는데 이런 처사는 낙후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이며 전략적 대응방법이기도 하다.

기술은 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얻는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말이쉽지 각국의 산업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정책때문에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각국의 방어진을 뚫고 들어가서 선진 기술정보를 빼내온다든지 현직 핵심기술자를 파격적인 좋은 대우로 빼내온다든지 또는 정년 퇴직자를 끌어온다든지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모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니 수지타산을 도외시할 수 없는 개인업체들로서는 성사여부도 불확실한 일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 일것이다.

또한 전술한 빼내오는 방법의 부도덕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류는 다같이 공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리우' 회의 같은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세계의 실상인 것이다. 또한 이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의 선진기술은 인류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에 장벽을 쌓는 행위는 인류공존에 역행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역조교역이 심한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터이니 선진기술을 이전해줘도 되지않소 하는 식으로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은 민간기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개발하여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정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물건을 많이 사갔다고는 하나 그것은 당신네 사정으로 시간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대꾸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기술낙후국이던 중국이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탄 등 이런 최첨단 기술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한 무기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 냈겠는가를 연구해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유전자사귀" 즉

이런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면 일본에 비해서 기초과학의 열세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도 무궁무진한 우리민족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할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본다.

거기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열세이기는 하나 지금도 남북한이 다같이 타국에서 만만하게만 볼 수 없는 나라들인데, 합심해서 통일·단결만 된다면 단시일내에 세계 열강 대열에 설 수 있는 재간과 정열이 있는 민족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성공시키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는 냉전 절정시기에 그 무기의 보유국이던 미·소양국이 기술이전을 해주었을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그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계각국에 엄청난 수가 살고있는 화교와 자국인 타국인 가릴것 없이 그 무기들의 제조에 관계되는 정보나 물자나 사람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들이고 빼내오는 수법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국정의 분야를 일시 희생시켜서 당의 고위층 몇사람만이 알고 극비리에 조성되고 집행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일은 독재정권이나 일인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 일 것이며,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일 것이다.

그런맥락에서 산업이 고도성장할 때의 싱가포르나 한국은 다같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 있다. 공산권에서 상당한 무기발달이 있는 것도 이와 상통되는 일 일 것이다. 연구해 볼 일이라 생각되나 나라발전을 위해서 독재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타국에 비해서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무시 못할 우리의 장애요인이 하나 있다. 다름아닌 자극성이 심한 우리음식의 문제다.

자극성이 별로없고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서 첨단기술이 발달되고 질 좋은 공산품이 생산되며 또한 높은 수준의 예술창작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세계의 실상이다. 맛중기로 소문난 요리의 본고장 불란서에서 수준높은 예술품이 나오고 초고속열차니, 고성능 콩코드여객기니, 정교한 액조재 미사일 등이 속속 개발된 것도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자극성이 별로없고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적당량 먹고나면 몸이 좀 가벼워진 것같고 무언가 약동하는 기분이 되며 유쾌해져서 금방 무슨 좋은 아이디어라도 떠오른 것같은 기분이 되었을 때가 누구나 한두번씩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상태가 계속 이어져나갈때 좋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개발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자극성이 별로없는 맛있는 음식물은 인간사회 발전에 보이지 않은 공헌을 하고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맥락에서 우리도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자극성이 심하지 않고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전용특별식당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극성이 심한음식을 배불리 먹고나면 아무래도 속이 얼얼하고 충혈상태가 상당시간 지속되는데 그 지속시간만큼은 연구생활에 알맞는 식생활을 하는 선진국 연구진에 비해서 장애시간이 될것은 당연하며 또한 이런시간의 누적은 연구실적이 뒤져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쌍방을 벗겨서 노출시키다보니 한인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측은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네들은 백여년 먼저 국가현대화에 착수했고, 6. 25같은 도약에 좋은 여건도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반면, 우리는 40여년전에 겨우 독립된데다 그나마 6. 25로 잣더미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 잣더미 속에서 단시일내에 재기하여 오늘날 선진국 문전에 서게되고 백인국가에 원조의 차관을 제공하게도 됐고, 세계기능올림픽에서는 연속 우승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에는 선진미국 철강업체에서 오히려 연수를 받으러도 오고, 종합공업인 조선업도 많은 부품을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외국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제조능력에서 세계 2, 3위를 다투는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한때는 1위로까지 부상하지 않았던가.

이런일들은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놀라와하고 있으며 또한 후진국에서는 미흡한 여건때문에 개최가 불가능시 되고있던 올림픽도 무사히 거뜬히 치루어내지 않았던가.

이런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면 일본에 비해서 기초과학의 열세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도 무궁무진한 우리민족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고 일본을 추월할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본다.

거기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열세이기는 하나 지금도 남북한이 다같이 타국에서 만만하게만 볼 수 없는 나라들인데, 합심해서 통일·단결만 된다면 단시일내에 세계 열강대열에 설 수 있는 재간과 정열이 있는 민족이다.

일본의 식지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통일된 한국의 무서운 에너지의 분출과 역사의 과거를 되돌아 보는 한국젊은이들의 매서운 눈초리라 한다.